

왕좌 앞에서 열리는 역사, 어린양 안에서 완성되는 노래

I. 서론

요한계시록 2-3장은 땅 위의 일곱 교회들을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, 칭찬과 책망과 경고와 약속으로 교회시대의 실재를 진단하시는 장면입니다. 그런데 6장부터는 일곱 봉인이 열리며, 세상 전체를 뒤흔드는 심판의 연쇄가 시작됩니다.

그 사이에 4-5장이 “갑자기” 하늘로 시선을 들어 올립니다. 이것은 단순한 장면 전환이 아니라, 앞으로 닥칠 심판을 “누가” “어떤 권위로” “어떤 목적을 향해” 진행하시는지, 그 심판의 근거(정당성)를 하늘의 법정에서 먼저 보여 주시는 문맥적 문(門)입니다.

4-5장을 놓치면 6장 이후를 “재앙의 나열”로 읽게 되지만, 4-5장을 붙들면 6장 이후가 왕좌의 주권과 어린양의 구속(救贖) 아래에서 진행되는 “역사의 회복”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.

II. 문맥 배경

1) 계시록 전체의 큰 뼈대(계 1:19의 문장 구조)

계 1:19에서 주님은 요한에게 세 덩어리를 쓰라고 하십니다.

- “네가 본 것들”
- “지금 있는 것들”
- “이후에 있을 것들”

이 문장 구조가 4:1의 “이 일 뒤에(After this)”와 정확히 맞물립니다. 2-3장이 교회시대(“지금 있는 것들”)라면, 4장부터는 “이후에 있을 것들”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.

2) 무대 이동: 등잔대(교회) → 왕좌(하나님 통치)

1장에서는 “일곱 금등잔대(교회들)” 사이에 계신 사람의 아들이 보입니다. 2-3장에서는 그 등잔대들(각 교회)을 직접 다루십니다. 그런데 4장부터는 “등잔대”가 아니라 “왕좌”가 전면에서 서고, 왕좌에서부터 “번개, 천둥, 음성”이 나오며, 6장부터 실제 심판이 흘러나옵니다.

- 2-3장: 교회가 땅에서 어떤 상태로 서 있는가
- 4-5장: 하늘에서 누가 역사를 주관하시는가(주권/합법성)
- 6장 이후: 열린 봉인에 따라 땅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(심판/회수)

3) 구약의 하늘 법정 배경

4-5장은 구약의 “왕좌 환상”들을 응축해 보여 줍니다.

- 사 6장: “거룩하다, 거룩하다, 거룩하다”의 왕좌 찬양
- 겔 1장: 네 생물(짐승), 눈, 날개 등 왕좌 주변 존재들
- 단 7장: “옛적부터 계신 분”과 “사람의 아들”이 나라를 받는 장면

요한계시록 4-5장은 이 구약의 왕좌-법정 이미지를 가져오되, 결정적인 한 가지를 더합니다. 바로 “어린양”입니다. 구약의 왕좌 환상은 “왕좌”를 보게 하지만, 요한계시록 5장은 “왕좌의 뜻이 어떻게 실행되는가”를 어린양의 피로 연결해 줍니다.

4) 왜 “봉인 심판 직전”에 4-5장을 주셨는가

1. 심판의 출처를 확정합니다: 심판은 우연도, 인간도, 마귀도 아니라 왕좌에서 나옵니다.
2. 심판의 집행자를 확정합니다: 봉인을 여는 분은 두려운 천사가 아니라,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입니다.
3. 심판의 목적을 확정합니다: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, 피로 사신 분이 되찾아 통치하시는 회수의 과정입니다(구속사).

III. 4-5장의 각 구절별 의미 요약

A. 계 4장: 하늘의 왕좌

계 4:1

“이 일 뒤에... 하늘에 한 문이 열려... 나팔 소리같이... ‘이리 올라오라...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’” (계 4:1)

- “이 일 뒤에”: 2-3장의 교회시대 묶음이 끝났음을 문맥적으로 선언합니다(계 1:19의 “이후에 있을 것들”로 진입).
- “하늘에 한 문”: 계시가 땅의 시야를 넘어 하늘의 관점에서 진행됨을 뜻합니다.
- “나팔 소리같이”: 이후 “들림(휴거)”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표식이 됩니다.
- “이리 올라오라”: 요한 개인에게는 환상 전개의 초대이지만, 동시에 교회시대 이후의 전개를 여는 상징적 모형으로도 읽혀 왔습니다(교회의 휴거의 모형).

계 4:2

“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... 하늘에 한 왕좌가 놓여 있고...” (계 4:2)

- “즉시”는 계시의 급 전환(즉각성)입니다.
- “왕좌”는 계 4-5장의 핵심 단어입니다. 6장 이후의 봉인 심판을 읽는 동안, 독자는 반복해서 이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.
세상이 흔들려도 왕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.

계 4:3

“벽옥과 홍보석 같고...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” (계 4:3)

- **벽옥(jasper):** 성경 문법에서 “빛나는 광휘/청정/영광”의 이미지로 작동합니다. (요한계시록 후반의 새 예루살렘에서도 벽옥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됩니다.)
- **홍보석(sardine/sardius):** “붉음”의 결을 가지고 있어 피/심판/왕권의 색채를 함께 떠올리게 합니다.
- **에메랄드 같은 무지개:**
 - 무지개 자체는 **언약의 표식**(창 9장)을 상기시키고,
 - “에메랄드”의 녹색 결은 왕좌의 거룩함이 곧바로 멸망만을 의미하지 않고, **언약적 신실함**(공홍의 지속) 안에서 역사한다는 방향을 잡아 줍니다.

요약하면: **왕좌의 거룩함 = 무서운 심판이면서도 언약에 근거한 신실함**입니다.

계 4:4

“스물네 장로... 흰옷... 금왕관” (계 4:4)

- **스물네(24)**는 성경에서 “대표성/완결된 질서”를 자주 씁니다(예: 제사장 반차 24반열의 질서).
- **장로(elders)**는 통상 “성도 공동체의 대표”라는 결을 갖고, 흰옷과 왕관은 2-3장에서 “이기는 자”에게 약속된 어휘들과 강하게 접속됩니다.
- 그래서 KJB 진영에서는 이 장면을 “교회가 이미 하늘에서 **왕-제사장적 신분**과 **상급의 표식**을 지닌 채 앉아 있는 장면”으로 읽는 흐름이 강합니다(V에서 근거 정리).

계 4:5

“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... 일곱 등불... 하나님의 일곱 영” (계 4:5)

- **번개/천둥/음성:** 출애굽기 시내산(출 19장)의 신현(神顯) 분위기와 유사합니다. 즉, 6장 이후 심판은 “하늘이 분노해서 폭발”하는 게 아니라, 거룩한 임재가 드러날 때 생기는 필연적 떨림입니다.
- **하나님의 일곱 영:** “일곱 개의 다른 영”이 아니라, 성령님의 **충만/완전성**을 나타내는 계시록의 문법입니다(계 1:4도 같은 흐름).

계 4:6

“수정 같은 유리바다... 네 짐승... 눈이 가득” (계 4:6)

- **유리바다:** “투명/고요/분리”의 이미지로, 왕좌 앞의 절대적 거룩함(접근의 경계)을 드러냅니다.
- **눈이 가득:** 왕좌 주변은 무지(無知)가 아니라 “완전한 감찰/인식”의 영역임을 선언합니다. 즉, 6장 이후의 심판은 “정보 부족으로 인한 과잉 반응”이 아니라 **완전한 앞**에서 나옵니다.

계 4:7

“사자... 송아지... 사람... 독수리” (계 4:7)

- 네 얼굴은 창조 세계의 대표성을 씁니다(맹수/가축/인간/조류). 왕좌 예배가 “교회 취향”이나 “이스라엘 취향”에 갇힌 예배가 아니라, **피조계 전체의 질서**를 끌어안는 예배임을 보여 줍니다.
- 또한 오래전부터 “복음서의 네 초상” 등으로도 상징 해석이 시도되어 왔습니다.

계 4:8

“여섯 날개... 밤낮 쉬지 않고... ‘거룩하다, 거룩하다, 거룩하다... 전에도... 지금도... 앞으로 오실’” (계 4:8)

- 세 번의 ‘거룩하다’는 이사야 6장의 왕좌 찬양과 같은 결입니다.
- “전에도/지금도/앞으로”는 계 1장에서 반복되던 하나님의 영원성 표식입니다.
이 찬양이 6장 직전에 자리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.
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늘은 먼저 “거룩”을 노래합니다.
심판은 하나님의 성품(거룩)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, 거룩의 자연스런 결과입니다.

계 4:9-10 (요약)

- 네 짐승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릴 때,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며 자기 왕관을 왕좌 앞에 던집니다.
- 이 장면의 성경 문법은 분명합니다.
왕관은 ‘내가 쟁취한 나의 영광’이 아니라, 주께 받은 것을 다시 주께 돌려드리는 예배의 재료입니다.

계 4:11

“오 주여... 영광과 존귀와 권능...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...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” (계 4:11)

- 예배의 이유가 “내 기분”이 아니라 창조(창조주-피조물 관계)에 박혀 있습니다.
- “주를 기쁘게 하려고”는 현대 인본주의(인간 중심)와 정면 충돌합니다.
성경 문법상 피조물의 존재 이유는 “자기 실현”이 아니라 창조주의 기쁨입니다.

B. 계 5장: 어린양과 일곱 봉인된 책 📖🐑

계 5:1

“오른손에 있는 책... 안과 뒷면... 일곱 봉인” (계 5:1)

- “책”은 고대의 “두루마리(roll)” 형태를 떠올리게 합니다.
- 안과 뒷면: 내용이 넘치도록 가득함, 즉 하나님 계획의 총만함.
- 일곱 봉인: 완전한 봉인(완전한 권리/완전한 통제).
이 봉인을 여는 권한은 곧 “역사 집행권”입니다.

계 5:2-3

“누가 합당하냐?” “아무도... 퍼거나 들여다볼 수 없더라” (계 5:2-3)

- 하늘 법정은 “능력”이 아니라 합당함(worthiness)을 묻습니다.
- 천사도, 사람도, 땅 아래의 어떤 권세도 이 책을 열 수 없습니다.
이것은 6장 이후가 “천사들의 폭주”가 아니라, 오직 한 분의 유일한 권리 행사임을 못 박습니다.

계 5:4

“내가 많이 울었더니” (계 5:4)

- 요한의 눈물은 단순 감정이 아니라 신학입니다.
구속자가 없다면 역사는 봉인된 채로 남고, 죄와 죽음과 저주가 “영원한 정상”이 되어 버립니다.
- 그래서 “책을 열 수 있음/없음”은 단순 정보 공개가 아니라, 구속사의 진행 가능성입니다.

계 5:5

“유다 지파의 사자... 다윗의 뿌리... 이기셨으므로” (계 5:5)

- 사자(獅子): 왕권, 정복, 승리.
- 다윗의 뿌리: 약속(언약)의 뿌리, 메시아 혈통의 근거.
- 핵심은 “이기셨으므로”입니다.
성경 문법에서 그리스도의 합당함은 “우리의 추천”이 아니라 **그분의 승리에 근거**합니다.

계 5:6

“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양... 일곱 뿔... 일곱 눈... 하나님의 일곱 영” (계 5:6)

- 사자가 등장할 줄 알았는데 어린양이 보입니다.
이것이 계 5장의 핵심 충격입니다.
하늘은 “힘센 사자”만을 숭배하지 않고, “죽임당한 어린양”을 왕으로 인정합니다.
- 뿔은 성경에서 힘/권세의 상징(완전수 일곱 → 완전한 권능).
- 눈은 감찰/전지(全知)의 상징(완전수 일곱 → 완전한 인식).
- 즉, 어린양은 무기력한 희생물이 아니라,
피 흘려 구속하신 방식으로 왕권을 얻으신 전능자이십니다.

계 5:7

“오셔서...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니라” (계 5:7)

- 하늘의 모든 시선이 이 “취하심”에 모입니다.
이제 6장은 “심판이 시작”이지만, 더 본질적으로는 **어린양이 역사를 여는 순간**입니다.

계 5:8

“하프... 금병... 향... 성도들의 기도” (계 5:8)

- 하늘은 “기도”를 연기처럼 흩어지게 두지 않고 금병에 담아 “향”으로 취급합니다.
- 이 문장은 교회시대 성도들의 현실을 강하게 위로합니다.
땅에서는 약해 보이는 기도가, 하늘에서는 **예배의 한복판**에 놓입니다.

계 5:9-10

“새 노래... 주의 피로... 우리를 구속... 왕과 제사장... 땅에서 통치” (계 5:9-10)

- 새 노래: 구속의 새 시대를 선포합니다.
- “주의 피로... 구속”: 합당함의 근거가 “도덕적 위대함”이 아니라 대속(代贖)의 피라는 점을 드러냅니다.
- 왕과 제사장: 계 1:6의 선언(성도들의 신분)이 5장에서 다시 노래로 확인됩니다.
- 땅에서 통치: 구속은 “하늘로 탈출”에서 끝나지 않고, 결국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 성도들이 그 통치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수렴합니다.

계 5:11–12 (요약)

- “만만이요 천천”의 천사들이 합류하고,
- “권능/부/지혜/힘/존귀/영광/찬송”의 일곱 겹 찬양이 터집니다.
하늘은 어린양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경배합니다.

계 5:13–14

“모든 창조물...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양께... 아멘... 경배” (계 5:13–14)

- 예배가 “하늘만의 취미”가 아니라, 궁극적으로 피조계 전체가 인정해야 할 왕권의 선언임을 보여 줍니다.
-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는 지점에서 6장이 시작됩니다.
즉, 심판은 “분노의 폭발”이 아니라, 예배로 확인된 왕권의 집행입니다.

IV. 주제 및 대표구절 🎯

1) 주제

- 왕좌(주권):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(계 4장).
- 어린양(구속): 역사는 피로 사신 분의 손에서 열립니다(계 5장).
- 그래서 6장 이후의 모든 격변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.
“왕좌는 안전하고, 어린양은 합당하시며, 봉인은 반드시 열린다.”

2) 대표구절(흠정역)

- 계 4:1
“이리 올라오라...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...” (계 4:1)
- 계 4:11
“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...” (계 4:11)
- 계 5:5
“유다 지파의 사자... 이기셨으므로...” (계 5:5)
- 계 5:9–10
“주의 피로... 우리를 구속... 왕과 제사장... 땅에서 통치...” (계 5:9–10)
- 계 5:12–13
“죽임을 당하신 어린양께서... 합당...” / “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양께...” (계 5:12–13)

V. 환란 전 교회의 휴거의 근거 🚀

여기서는 “4-5장이 교회 휴거를 직접 교리적으로 정의한다”기보다, 4-5장이 2-3장(교회시대) 이후, 6장(봉인 심판) 이전에 놓인 이유와 함께 환란 전(前) 휴거의 흐름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성경 문맥으로 정리합니다.

1) “이 일 뒤에... 이리 올라오라”(계 4:1)의 문맥적 기능

- 계 4:1은 2-3장의 “교회들” 메시지가 끝난 뒤에 “이후에 있을 것들”의 장면으로 넘어가는 경계선 문장입니다.
- “나팔 소리같이”라는 표식과 “올라오라”는 호출은, 신약 다른 곳의 들림(휴거) 표식(나팔/부름/공중)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언어입니다.
- 다만, 이 구절 하나만을 “휴거 교리의 단독 증거”로 삼기보다는, 다른 분명한 본문들(예: 살전 4장 등)로 교리를 세운 뒤, 계 4:1을 그 교리와 조화되는 모형적 장면으로 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.

2) 교회(교회들)의 호칭이 4장 이후 한동안 전면에서 사라지는 흐름

- 2-3장은 “교회들”이 전면이지만,
- 6장 이후는 “땅에 거하는 자들” “이스라엘” “민족들” 등의 어휘가 전면화됩니다.
- 이 변화는 교회시대가 끝나고, 하나님께서 민족적·세계사적 심판 구도를 전면에 두시는 구간으로 넘어갔음을 시사합니다.
- 교회 단어: 3:22에 마지막으로 언급되고, 사라졌다가 22:16에 다시 언급됨.

3) 스물네 장로의 위치와 상태(계 4:4)

- 장로들은 왕좌 둘레에 앉아 있고,
- 흰옷과 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(계 4:4).
- 2-3장에서 주님은 “이기는 자”에게 흰옷/왕권적 약속을 주셨습니다.
그러므로 이 장면을 “교회가 이미 하늘에서 상급의 표식을 가진 상태”로 이해하면, 6장의 심판(전 세계적 시험/환란)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가 하늘에 있다는 환란 전 휴거의 흐름과 자연스럽게 맞물립니다.

4) “시험의 시간”을 면하게 하리라(계 3:10)의 직접 약속

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은 매우 직접적입니다.

- “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시간”이라는 전 지구적 범위
- “너를 지켜 ... 면하게 하리라”라는 보호의 방식

이 약속은 4-5장이 “왜” 6장 직전에 필요한지를 설명해 줍니다.

즉, 교회에 대한 약속(2-3장)의 다음 장면이 “왕좌 앞(4-5장)”이라면, 그 자체가 보호의 방식이 ‘하늘 관점으로 들어올림’이라는 방향을 암시합니다.

5) “어린양의 진노”가 시작되기 전(계 6장) 왕좌와 어린양을 먼저 보여 주심

6장에서 사람들은 “어린양의 진노”를 말하기 시작합니다(계 6:16–17).

그렇다면 4–5장은 “어린양의 진노”가 무엇인지 오해하지 않도록 미리 못 박습니다.

- 그 진노는 무분별한 분노가 아니라,
- 죽음당한 어린양의 합당함에서 나오는,
- 구속의 권리를 집행하는 진노입니다.

이 흐름 속에서, 교회가 “진노 아래 남겨진다”기보다 “약속대로 지켜져 면하게 된다”는 전통적 환란 전 휴거 이해가 문맥적으로 더 자연스럽습니다.

정리하면: 4–5장은 휴거를 “정의”하기보다, 2–3장의 교회 약속 이후 곧바로 “하늘 왕좌”로 장면이 옮겨지는 방식으로, 환란 전 휴거 교리와 강하게 결을 맞춥니다.

VI. 4–5장에 계시된 그리스도

4–5장에서 그리스도는 “설교 소재”가 아니라, 하늘의 중심 그 자체로 계시됩니다.

1) 그리스도는 왕좌 예배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

- 4장: 왕좌에 앉으신 분의 거룩과 창조 권능이 찬양됩니다.
- 5장: 어린양이 책을 취하실 때, 하늘은 그분께 동일한 경배를 올립니다(계 5:13).
이는 어린양이 단지 피조물이 아니라, 왕좌의 권위에 참여하시는 신적 합당함을 드러냅니다.

2) “사자”와 “어린양”의 결합(계 5:5–6)

- 사자 = 왕권/승리
 - 어린양 = 희생/대속
- 하늘은 이 둘을 분리하지 않습니다.
그리스도의 왕권은 십자가의 피 위에 서 있습니다.

3) “일곱 뿔”과 “일곱 눈”(계 5:6)

- 뿔(권능)과 눈(전지)이 완전수(일곱)로 제시됩니다.
즉, 어린양은 “희생자”로 끝나지 않고, 희생으로 권세와 통치를 합법적으로 얻으신 분입니다.

4) “피로 구속”과 “왕-제사장”의 백성(계 5:9–10)

- 그리스도의 피는 “감동적인 희생”이 아니라 구속의 대가입니다.
- 그 피로 산 백성은 “구경꾼”이 아니라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.
- 그리고 그 목적은 “땅에서 통치”로 연결됩니다.
그리스도론적으로 말하면, 5장은 “십자가”가 “왕국”을 여는 열쇠임을 하늘에서 선포합니다.

VII. 결론

요한계시록 4-5장은 6장 이후의 심판을 “더 무섭게 만들기 위한 예고편”이 아닙니다. 오히려 정반대입니다.

- 4장은 심판의 시대가 와도 **왕좌는 안전**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.
- 5장은 심판의 집행자가 “파괴자”가 아니라 **죽임당한 어린양**임을 보여 줍니다.
- 그래서 6장 이후의 모든 격변은 결국
 피로 사신 주께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회복하시는 과정으로 읽히기 시작합니다.

이 구조를 마음에 새기면, 교회시대 성도는 2-3장에서 책망과 경고를 들으며 “내 상태”를 점검하게 되고, 4-5장에서 “왕좌와 어린양”을 보며 “내 시대의 끝에 누가 서 계신가”를 붙들게 되며, 6장 이후의 두려운 장면들을 보면서도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.

왕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.

어린양은 합당하십니다.

그러므로 역사도, 심판도, 회복도 그분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.